

통계청, 30년간 혼인·출생변화 분석

혼인 기피에 광주·전남 출생아 수 4분의 1로

합계출산율 광주 1.83명→0.79명 최대폭 감소

전남은 1명대 겨우 유지… 혼인 45.2%·58% ↓

혼인 기피로 최근 30년 새 광주·전남 지역 출생아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광주의 혼인건수는 5688건으로 30년 전인 1995년(1만377건)과 비교해 45.2% 줄었다.

전남도 1만6789건에서 7049건으로 58.0% 급감했다.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같은 기간 대비 광주는 8.1명에서 4.0명으로 반토막 났고, 전남은 7.7명에서 3.9명으로 주저앉았다.

출생아 수 통계도 우을 그 자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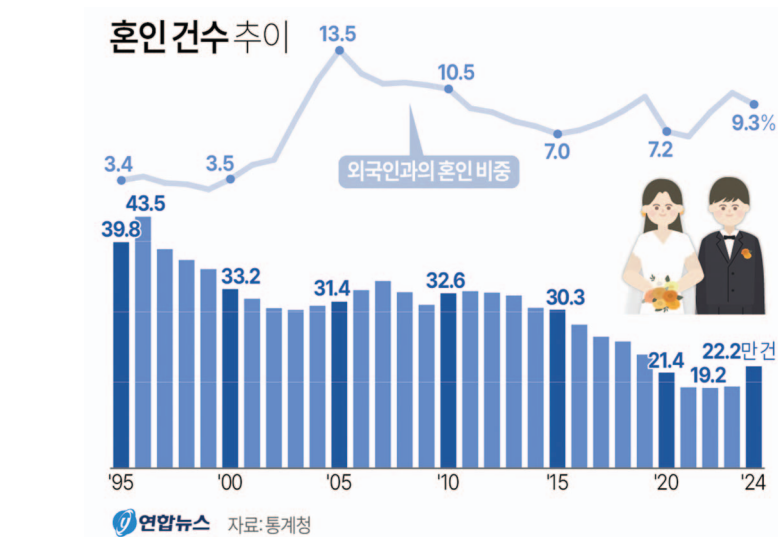
광주의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1995년 2만2900명에서 감소추세가 이어지며 지

난해에는 6000명까지 추락했다. 30년 새 무려 73.7%가 급감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감률(66.7%)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전남은 2만8200명에서 지난해 7800명까지 떨어지며 75.1%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79.9%), 부산(-75.2%)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율이 크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의 경우 1995년 광주는 1.83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0.79명으로 61.8% 급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감소폭이 크다.

전남 역시 1.78명에서 42.3% 줄어든 1.03명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합



계출산율이 1명 이상인 광역 시·도는 세종(1.03명)과 전남 뿐이다.

전국적으로도 결혼 건수가 30년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출생아 수도 3분의 1로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혼인 건수는 1995년 39만 8500건에서 지난해 22만2400건으로 30년 새 44.2% 줄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1만3500건에서 2만 800건으로 53.9% 늘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남자 28.4세, 여자 25.3세에서 지난해 남자 33.9세, 여자 31.6세로 남자는 5.5세, 여자는 6.2세 높아졌다.

출생아 수는 1995년 71만5000명에서 급감해 2023년 23만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지난해 23만8000명으로 소폭 높

다. 30년간 66.7% 감소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3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54.2% 줄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5년 27.9세에서 2024년 33.7세로 5.8세 상승했으며, 부의 평균연령은 같은 기간 31.1세에서 36.1세로 5.0세 높아졌다.

첫째아의 비중은 크게 확대됐다. 1995년 34만5800명이던 첫째아는 지난해 14만6100명으로 19만9700명(57.7%) 감소했다.

하지만 첫째아 비중은 1995년 48.4%에서 지난해 61.3%로 13.0%p 커졌다.

둘째아와 셋째아 감소폭이 각각 23만 1900명(75.4%), 4만5100명(73.5%)으로 더 컸기 때문이다.

혼인 외의 출생아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5.8%로 확대됐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아 비중은 1995년 1.3%에서 2024년 5.7%로 4.3%p 늘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ECONOMY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여수광양항만공사, ESG 강화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국제인증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글로벌 친환경 인증기관인 컨트롤유니언(Control Union)으로부터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국제인증인 ‘OBP(Ocean Bound Plastic)’ 인증을 획득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OBP 인증을 취득한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인증을 이어가며 최장기 보유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동안 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발생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페플라스틱을 수거·추적·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안전조끼와 차선 규제 블록 등 재활용 제품을 제작해 항만 현장과 근로자들에게 보급해 왔다.

앞으로는 페플라스틱뿐 아니라 페르프 등 항만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을 확대하고, 친환경 항만 조성 과 ESG 경영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5년 연속 OBP 인증은 해양 환경 보호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ESG 기반의 항만 운영을 통해 대표적인 친환경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전남신보-기업은행

‘비즈플러스’ 업무협약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전남지역 소상공인 성공 기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의 구매전용카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도 1000만원의 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연회비 면제, 최대 10만원 캐시백, 6개월 무이자 할부, 보증료 무료(기업은행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전남신보와 기업은행은 영업점별 전담직원 배치,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홍보부스 설치, 전담직원 간 핫라인 개설 등을 추진한다. 또 고객이 추가로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노동청, 임금체불 청산

내달 2일까지 신고 청구 운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민족대명절 추석을 대비해 오는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운영 기간을 확대하고 ‘신속·정확·엄정’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를 개설했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를 전개한다.

체불 취약사업장(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사전 체불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농협 전남본부 “‘농심천심’ 운동 확산 노력”

농축협 건전결산 전략회의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 농축협 기획상무 1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건전결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도 연도 말 사업과 손익전망을 분석하고 예산절감 추진 등 건전결산을 위한 경영관리방향 및 상호금융대출 채권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남본부는 농협이 새롭게 추진하는 법국민 운동인 ‘농심천심’의 취지를 공유하고, 운동 확산 의지도 다졌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국민적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 농축협 기획상무 1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건전결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소득 증대, 농촌 활력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미래농업 선도, 농촌재생 등 10대 추진과제를 통해 농업인이 존중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내수 부진과 급리 인하 등으로 농축협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손익·연체 등 부진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해 2025년도 건전결산을 기필코 이뤄달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쌀 20kg 평균가 6만원 돌파… 전년비 17% ↑

지난달부터 가격 곱들

쌀 소매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20kg당 6만원을 넘어섰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6만29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올랐다. 이는 평년보다도 14% 높은 수준이다.

쌀값은 7월 들어 급등세를 보이며 한때 6만원을 웃돌았다.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쌀인 지원에 나서면서 한 달가량 5만9000원대에서 안정됐으나, 이달 들어 다시 6만원대로 올라섰다.

지난달에는 일부 지역 마트에서 쌀 한포대(20kg) 가격이 7만~8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쌀값 강세는 햅쌀 출하를 앞둔 시점에 서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전남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 올라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배경에는 원료곡을 확보하려는 산지 유통업체 간 경쟁이 있다.

재고 부족이 심화하자 농식품부는 정부 보유 양곡 3만t을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공급된 물량은 이번 주부터 시장에 풀리며 이달 말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쌀인 행사에서 현행 20kg당 3000원 수준인 쌀인 금액을 4000~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안전관리 혁신·근로자 안전 일터 구축

포스코그룹, SGS와 업무협약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전문 기업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3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글로벌 안전 전문 컨설팅사인 SG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GS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플랜트 진단에 특화된 글로벌 최대 규모의 안전 컨설팅 전문회사로 전 세계에 2600여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등 선진 프로세스 수립에 집중하게 되며, 이번달 포스코이앤씨 안전 진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 전문 지식·기술을 교류하고 그룹이 추진 중인 안전 전문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 된다.

정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제조와 문화, 기술 분야를 과감히 혁신해 포스코그룹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



September 2, 2025

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듀폰사의 안전 노하우를 활용해 설립한 안전 컨설팅 전문기업 dss +와도 만나 포스코그룹 안전 솔루션 전반에 대해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자녀 통장·체크카드 만들면 현금 지원”

광주은행, ‘아이Wa나 이벤트’…11월까지 선착순 2000좌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시 용돈을 지급하는 ‘아이Wa나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계좌와 카드를 개설할 수 있다. 송석현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족에게 받는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며 올바른 금융 습관을 키우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10층 상품권 데스크에서 ‘추석 상품권 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

롯데 광주점, 추석 상품권 패키지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10층 상품권 데스크에서 ‘추석 상품권 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

최대 3%까지 추가 증정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300만

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이상 현금 구매 시 금액대별로 1.5%~ 3%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또 법안카드도 구매 시 1%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